

漢文教材에 반영된 漢語文字學의 적용현황 考

— 고등학교 한문교재를 중심으로 —

韓 延 錫*

<目次>

- | | |
|------------------|---------|
| I. 序言 | III. 結語 |
| II. 漢語文字學의 적용 현황 | |

<국문 초록>

고등학교 한문교재에는 漢語文字學 관련 진술과 이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이 다수 보인다. 교재에 반영된 漢語文字學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聲符를 공유한 한자들을 系聯한 교수학습법이다. 예컨대 聲符가 각인 형성자 格, 洛, 絡 등을 한데 모아 教授·學習하는데, 이는 한자의 形과 音을 학습하기 용이하다. 둘째, 여러 가지 뜻을 소유한 한자들을 系聯한 교수학습법이다. 이는 한문교과서에 흔히 보이는 漢字, 漢字語 교수학습법이다. 예컨대 ‘塞’자의 경우 塞翁之馬(변방 : 새), 要塞(요새 : 새), 拔本塞源(막다 : 색)과 같이 한자의 뜻이 쓰임에 따라 달라짐을 제시한다. 셋째, 한자의 구조를 분석하거나 한자의 部件을 조합하여 교수학습 한다. 예컨대 掌(장)의 구조를 ‘手(뜻) + 尙(음)’으로 분석하여 ‘손바닥’이란 뜻을 학습자가 유추 할 수 있도록 한다. 반대로 部件 易을 제시하고 이를 ‘月, 木, 申, 水’ 등과 조합하여 腸, 楊, 暢, 湯 등의 한자를 학습 한다. 넷째, 부수가 같은 한자를 系聯한 교수학습법이다. 예컨대 부수가 같은 鋼, 鑛, 鎖, 銃 등을 한데 모아 교수학습하는 것이다. 이는 한자의 義와 形을 학습함에 유리하다. 다섯째, 모양이나 뜻이 비슷한

* 公州大學校 漢文教育學科 副教授 / hanyoun4860@hanmail.net

한자를 系聯한 교수학습법이다. 예컨대 모양이 비슷한 ‘險, 檢,’ 뜻이 같은 ‘年, 歲’ 등을 한데 모아 교수학습하는 것으로, 形과 義를 학습하는데 효과적이다.

한어문자학의 진술이 미진한 경우도 있다. 소전은 ‘漢나라 때까지 국가의 표준 書體로 쓰였다.’와 육서를 뭉뚱그려 ‘한자를 만드는 원리’라고 진술한 것은 미진하다. 문장해석에 한자의 뜻 제시가 부적절한 곳도 있다. ‘薄集龍門下數千’의 薄을 ‘모이다.’로 제시 하였는데, 이는 本義 ‘풀 무더기’로부터引伸된 ‘밀집’이 옳다. ‘我國本聖人之都’의 都를 ‘아름답다.’ 世襲의 ‘襲’을 ‘세습하다’로 제시하였는데 각각 ‘국가’, ‘이어받다’가 옳다. 字源 분석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다. 嘗, 鳥를 회의자로 분석하기도 하고, 多의 夕을 ‘저녁 석’으로, 示는 하늘, 해, 별, 달을 그린 것이며, 路는 각(各) 사람의 발(足)’이라고 하였다. 嘗, 鳥는 형성, 多의 夕은 月(肉)의 생략, 示는 신주의 모습, 路의 各은 움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발을 그려 ‘들어오다.’가 본의이다. ‘각각’과는 상관이 없다. 緣木求魚의 緣을 ‘쫓다.’로 풀이하였는데 ‘오르다’가 적합하다. 緣의 本義 ‘옷의 가장 자리의 장식’으로부터 ‘오르다’라는 뜻이引伸되었다. ‘獻諸子罕’의 ‘諸’를 ‘之於의 의미’라 했는데, ‘之於’의 축약이다. ‘之於’를 빨리 읽으면 ‘저’가 된다. 이를 ‘諸’로 나타낸 것이다.

朱子는 『詩』, 「召南·行露」 제 2장의 韻字인 ‘角, 屋, 家, 獄, 獄, 足’에서 ‘家’가 압운이 되지 않는다 하여 ‘谷’으로 읽어 和韻 하였다. 이는 한자의 독음 변천을 모르고 자신의 시대의 음으로 선진시대의 음을 재단한 愚를 범한 것이다. 우리도 이런 愚를 범하지 않나 되돌아 볼 일이다.

【주제어】 聲符活用, 構造分析法, 漢字學, 音韻學, 字源分析, 義項, 讀音

I. 序言

한문교육계는 漢語文字學¹⁾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다. 단적인

1)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훈고학, 한자학, 음운학이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분화되지 않았다. 훈고학 중심이지만 小學이라 부르다가 1900년대 분화되었는데, 이들 세 학문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적당한 학문 명칭이 없다. 일부 전공자들이 이를 漢語文字學이란 용어로 통섭하고 있는데, 적합여부를 떠나

예가 전국의 한문교육과 교수진에 漢語文字學 전공자가 거의 없고, 임용고사에 한자학 관련 문항이 많아야 4점정도 출제됨이 이를 반증한다. 漢語文字學과 漢文教育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교육 여건과 학생들의 정서에 비춰보면 더욱 그러하다.

현재 중학교에서 한문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 선택을 한다 해도 보통 2~4 단위의 적은 수업시수를 확보하고 있다. 학생들의 한문에 대한 정서도 점점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제반 사정으로 중학교의 한문 수업은 문장 수업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전언이다.

이는 각 대학의 교양한문 운영과도 어느 정도 연관된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 ‘교양한문’은 축소 내지는 폐강되고, 그 자리를 ‘교양한자’가 대체되고 있다. 교양한자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 의하면 ‘교양한문’으로 강좌를 개설 하면 수강생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이는 수강생들의 수강 목적이 한문문장 공부라 아닌, 전공이나 기타 서적을 읽고 공부하는데 필요한 한자 지식의 함양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대학생들의 인식 변화는 중·고등학교의 한문수업 역시 한자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자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문교재와 이를 가르치는 한문 교사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언급했다시피 한문교육과의 커리큘럼이나 교수진 확보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아울러 이러한 준비 부족은 한문교과서의 한어문자학 방면의 구성과 진술의 미비로 이어지고, 나아가 한문교과서 발전의 한 장애가 되기도 한다. 본고는 고등학교 한문 教材에 반영된 漢語文字學 방면의 적용 현황²⁾을 살피고, 아울러 그 내용과 진술의 당위성을 검토하여 한자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필자도 이를 준용한다.

- 2) 검토 대상은 6차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이다. 이들 중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한어문자학 관계 진술이 가장 많다.

II. 漢語文字學의 적용 현황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한자관계 진술을 살펴본다. 교재에 한자학의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지만 한자어 혹은 한문 문장 분석에 미진한 곳도 보인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漢字學 方면의 적용 현황

고등학교 한문 교재는, 본문에서는 한자학만을 따로 다루고 있지 않다. 심화학습이나, 본문 이해 학습, 해석의 길잡이 등을 통해 어구에 쓰인 한자나 한자어의 용법을 다루고 있다. 한자학을 응용한 한자, 한문교육은 상당한 장점이 있다. 아래 이들 부분을 소개한다.

1) 동일 聲符를 공유한 한자들의 系聯

대부분의 교과서는 본문에 출현하는 한자 혹은 한자어에 사용된 한자를 심화나 보충학습에서 실시한다. 아래는 聲符를 공유하고 있는 형성자들을 系聯하여 教授學習한 사례들이다.³⁾

矯(교) : 矯導 矯正	讀(독) : 朗讀 默讀	徐(서) : 徐行
橋(교) : 橋梁 橋脚	續(속) : 繼續 續刊	除(제) : 掃除
仰(양) : 信仰 推仰	格(격) : 格鬪 缺格事由	
抑(억) : 抑留 抑壓	洛(락) : 洛東江 洛陽	儉(검) : 儉約 儉素
迎(영) : 迎接 迎合	絡(락) : 脈絡 連絡船	劍(검) : 劍術 劍道
積(적) : 蓄積 積金	付(부) : 給付 還付	檢(검) : 檢查 點檢
績(적) : 成績 業績	符(부) : 符號 符合	險(험) : 險難 險路
蹟(적) : 古蹟 奇籍	附(부) : 附和雷同 阿附	

3) 이명학외 2인, 『漢文 I』, 을유문화사, 2001, pp.11-25.

위와 같이 동일 聲符를 具有한 漢字들을 系聯한 교수학습은, 聲符 글자와 聲符를 공유한 형성자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들 형성자로 구성된 漢字어를 학습할 수 있다. 이는 동일 부수를 공유한 漢字들을 계열하여 교수학습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동일 부수를 공유한 漢字의 계열은 형과 의를, 동일 성부를 공유한 漢字의 계열은 형과 음을 학습하기 용이하다.

2) 여러 가지 뜻을 具有한 漢字의 系聯

한문교재에 가장 흔히 보이는 漢字, 漢字어 교수학습 방법은, 漢字의 여러 가지 뜻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뜻’의 제시는 용법 설명을 수반하기도 한다.

A	塞	(새) 변방	塞翁之馬	E	角	겨루다	角力之戲 (힘을 겨루는 놀이 = 씨름)	
		(새) 요새	要塞			뿔	牛角(쇠뿔)	
		(색) 막다	拔本塞源 ⁴⁾		捷	이기다	捷報(승리의 소식)	
우두머리	首領	빠르다	捷徑(지름길)					
B	首	향하다	首丘初心		F	將	~로써	後將何觀 (뒤에 무엇으로써 보겠는가.)
		자백하다	自首 ⁵⁾				장차	將追改之(장차 그것을 고치려고 한다.)
C	益	더하다	增益	乃		이다	이름	乃實創國之神迹(실로 국가를 세운 신이한 자취이다.)
		이익	利益				아름답다	我國本聖人之都(우리나라의 근본인 성인의 아름다움)
D	素	본디	素質			都	도읍	首都(수도) ⁶⁾
		희다	素服 ⁷⁾					

A는 한자의 字義에 따른 독음의 변화와 이의 한자어로의 활용 예를 보여주고 B, C, D, E는 한자어에 따라 뜻이 다르게 쓰임을 보여준다. F는 首都(수도)를 제외하고 문장에서의 용법의 변화를 보여준다.

3) 한자의 구조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한자의 구조를 분석하여 字義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 하기도 한다.

A	글자의 발전	大 - 天(가장 큰 것, 一 + 大)
B	島(섬도)	鳥(새) + 山(산) - 새가 바다를 날다가 쉬어 가는 산
C	止. 의미의 형성	발바닥 모양에서 ‘발’의 뜻으로, 다시 발이 하는 동작으로 연결되어 ‘가다, 멈추다’의 뜻을 나타낸다. ⁸⁾
D	掌(장)	手는 ‘손’으로 뜻을 나타내고, 尙은 음(상 → 장)을 표시하여 ‘손바닥, 장악하다’의 뜻이 됨.
E	扞(거)	手(扞)는 ‘손’으로 뜻을 나타내고, 巨는 음(거)을 나타내어 ‘손으로 막다, 거절하다’의 뜻이 됨. ⁹⁾

자원 분석의 옳고 그름을 떠나, 위와 같은 한자의 구조분석은 六書論을 한자 학습에 활용한 것으로 자형과 자음, 혹은 자형과 자의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4) 部件의 조합을 통한 교수학습

한자의 구조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과 유사한 원리이다.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이 소개 되었다.

- 4) 이명학의 2인, 『漢文 I』, 을유문화사, 2001, p.17.
- 5) 이명학의 2인, 『漢文 I』, 을유문화사, 2001, p.184.
- 6) 최상익의 2인, 『漢文古典』, (주)금성출판사, 2003, E, p.51. F, p.83.
- 7) 최상익의 3인, 『漢文 I』, 금성교과서(주), 1996, p.10.
- 8) 최상익의 3인, 『漢文 I』, 금성교과서(주), 1996, A, p.13. B, p.33. C, p.184.
- 9) 김도련의 2인, 『한문 I』, 교학연구사, 1998, D, p.28. E, p.40.

A. 부수 카드, 사다리 타기 등을 이용하여 한자 만들기

- ‘雨 馬 彡 心 田 竹 月 日 耳 一’의 부수를 주고 조합하여 한자 만들기
- 사다리 타기 : 사다리 위쪽에 ‘巾 彡 彡’를, 아래쪽에 ‘州 肖 肖’를 놓고, 사다리 타기를 통해 서로 만난 部件들을 결합하여 한자를 만들고 품訓 말하기
위쪽에 ‘飛 彡 彡 彡 足 彡 彡’을, 아래쪽에 ‘番 番 番 兆 兆 兆’를 일대일 직선으로 대응하여 글자 만들고 음훈 말하기¹⁰⁾

B. 공통 部件으로 한자 조합하기

- 易을 공통 部件으로 ‘月 木 申 彡’와 결합하여 한자 만들기
腸(장) 창자 : 肝腸 胃腸
楊(양) 버들 : 陽柳 楊貴妃
暢(장) 화장하다 : 和暢 暢達
湯(탕) 끓다 : 沐浴湯 龍味鳳湯
- 亥를 공통 부건으로 ‘巾 言 木’과 결합하여 한자 만들기
刻(각) 새기다, 시각 : 板刻 遲刻 寸刻
該(해) 넓다 : 該博 該當
核(핵) 씨 : 核心 核分裂
- 賁을 공통 부건으로 ‘禾 糸 足 彡’과 결합하여 한자 만들기
積(적) 쌓다 : 累積 蓄積 沈積
績(적) 공 : 功績 成績 業績
蹟(적) 자취 : 古蹟 奇蹟 史蹟
債(채) 빚 : 債務 負債 卜債¹¹⁾

A는 부수카드, 혹은 사다리타기를 통해 한자를 조합하고 그 음, 뜻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는 ‘회의와 형성’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학생들이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도구나 놀이 방법을 한자교학에 응용한 것이다.

B는 공통 부건을 다른 부건들과 조합하여 한자를 만들고 이들의 뜻과 음을 익히며, 이들을 한자어와 연계시켜 교수학습 한다. 부수자가 아닌

10) 심표섭외 7인, 『고등학교 한문』, 대학서림, 2003, pp.22-47.

11) 이명학외 3인, 『고등학교 漢文』, 두산(주), 2004, pp.12-28.

부건을 공통 부건으로 삼은 한자는 대부분 형성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教學法은 ‘공통 聲符를 활용한 한자 익히기’에도 해당한다. B는 이를 좀 더 수준 높게 교육공학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5) 부수가 같은 한자의 系聯

부수가 동일한 한자를 한데 모아 교수학습 한다.

부수가 같은 한자		부수가 ‘金 쇠 금’인 한자	
羽	羽毛(깃), 左翼(날개)	鏹(강) 강철	鋼鐵(강철)
女	侍女(여자) 良妻(아내)	鑣(광) 광물	銅鑣(동광)
口	浦口(입구) 呼吸(내쉬다)	鎖(쇠) 닫다	鎖國(쇠국)
生	蘇生(살다) 產卵(낳다) ¹²⁾	銃(총) 총	拳銃(권총) ¹³⁾

위 동일 부수자의 系聯은 한자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자어까지 함께 익힘으로써 동일 부수를 구유한 한자들만을 나열하는 것보다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글자를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 모양이나 뜻이 비슷한 한자의 系聯

모양이나 한자의 뜻이 비슷한 한자를 계련하여 한자를 교수학습하기도 한다.

A. 모양이 비슷한 한자

險(험) 험하다 : 危險(위험)	莫(막) 없다 : 莫無可奈(막무가내)
檢(검) 검사하다 : 檢査(검사)	幕(막) 막 : 帳幕(장막)
丸(환) 알 : 丸藥(환약)	郎(랑) 사내 : 郎君(낭군)
斥(척) 물리치다 : 排斥(배척)	朗(랑) 밝다 : 朗誦(낭송)
絃(현) 악기줄 : 絃樂(현악)	失(실) 잃다 : 損失(손실)
弦(현) 활시위 : 弓弦(궁현)	矢(시) 화살 : 弓矢(궁시)

12) 김도련외 2인, 『한문 I』, 교학연구사, 1998, pp.158-170. 본 교재는 주요 부수 48개를 다루었다.

13) 김상홍외 3인, 『고등학교 한문』, (주)교학사, 2002, p.162.

B. 뜻이 비슷한 한자

察(찰) 살피다 : 巡察(순찰)	年(년) 해 : 閏年(윤년)
督(독) 감독하다 : 督勵(독려)	歲(세) 해 : 歲費(세비) ¹⁴⁾

A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B는 뜻이 같거나 유사한 한자를 계련한 것이다. 둘 다 먼저 한자를 제시하고, 다시 이와 관련된 한자어를 제시하여 교수학습 한다.

7) 字源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字源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은 ‘한자연구, 한자의 짜임, 한자城의 비밀’ 등의 난을 통해 이루어진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尖 (끝 찹)	小(작다) + 大(크다) ⇒ 끝은 가늘고 밑은 굵다.
‘自’의 변천	◦ 글자의 형성 : 卩(코의 모양) → 自 ◦ 의미의 형성 : 코는 얼굴의 중앙에 있으므로 그 사람을 대표한다. 그래서 자기의 코를 가리켜 ‘나’를 나타낸다. ¹⁵⁾
齊(제)	보리 이삭이 가지런히 자란 모습[𪎭] → 齊에서 ‘가지런하다, 가지런하게 다스리다’는 뜻이 됨.
沐(목)	水[氵]는 ‘물’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木은 음[목]을 표시하여 ‘머리 감다’는 뜻을 나타냄. ¹⁶⁾
罪	罪는 그를 비(非)자와 그물 망(𦉳 ; 網의 변형)자가 결합된 글자이다.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잡히게 된다는 뜻에서 ‘허물’ 또는 ‘죄를 주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草	草는 풀 초[艹]와 일찍 조[屮]를 결합한 글자이다. 풀 초(草)는 본래 모양은 초[艸]이다. … 草와 초(艸)는 서로 뜻이 같기 때문에 옛 어른들은 두 글자를 서로 통용하기도 하였다. ¹⁷⁾

14) 김상홍의 3인, 『고등학교 한문』, (주)교학사, 2002, pp.46-126.
 15) 최상익의 3인, 『漢文 I』, 금성교과서(주), 1996, p.33, p.169.
 16) 김도련의 2인, 『한문 I』, 교학연구사, 1998, p.52, p.64.

위 自, 齊, 沐의 분석은 정확하다. 草와 초(艸)가 뜻이 같기 때문에 두 글자를 통용한다는 것은 부정확하다. 자원 분석을 통한 한자 학습은 한자의 음, 뜻을 단순히 외우는 학습보다 흥미와 把持力을 높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한자 교수학습법은 한자의 聲符 활용, 자의 활용, 부수 활용, 자형 활용(類似字 系聯), 자원 활용, 한자 조합, 한자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법 등이 망라되었다.

2. 漢字學의 적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교재에 반영된 한어문자학 가운데 그 진술이 미비하거나 오류인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자학 일반에 관한 진술

아직 字體와 書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리 되지 않은 듯하다. 교재는 한자의 자체의 변천을 설명함에 ‘갑골문, 금문, 대전, 소전, 예서, 해서, 초서와 행서, 약자’¹⁸⁾로 구분한 곳도 있는데, 한자학에서는 자체를 ‘갑골문, 금문, 전서, 예서, 해서’로 구분한다. 나머지는 서체로 분류한다.

또, “소전은 한(漢)나라 때까지 국가의 표준 書體로 쓰였다. 한자는 소전 이후 점차 체계화되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¹⁹⁾고 한 곳도 있다. ‘표준 書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없으나(서체는 자체를 가리키는

17) 이희목의 3인, 『고등학교 한문』, (주)천재교육, 2003, p.68, p.134.

18) 박성규의 3인, 『고등학교 한문 I』, 두산동아(주), 2012, pp.11-12. 참조. 어떤 교재는 전서에 대해 “일반적으로 소전을 가리키며, 진나라 때 문자를 통일 하면서 정한 자체”(심표섭의 4인, 『고등학교 한문 I』, (주)도서출판 대학서림, 2012, p.10.)라고 하여 전서가 진나라 때 형성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하였다. “소전은 진나라 때 문자를 통일 하면서 정한 자체”가 정확한 표현이다.

19) 박성규의 3인, 『고등학교 한문 I』, 두산동아(주), 2012, p.11.

듯함.), 서한 시대부터 隸書가 이미 국가의 공인 字體였다. ‘한자는 소전 이후 점차 체계화되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서술도 정확한 진술은 아니다. 해서까지 통틀어 보면 옳은 진술이지만, 소전 이후의 字體인 隸書와 비교하면 부정확한 진술이다. 소전은 비교적 正字化, 規範化가 이루어졌으나, 隸書는 소전의 이러한 규범성이 거의 상실된 자체이다. 예서는 한자 발전사에서 가장 극렬한 자체 변화를 가져 왔기 때문에 俗體로 분류한다. 해서에 보이는 同字異形, 異字同形은 거의 예서단계에서 생성된 것으로, 이는 예서의 큰 문자 演變을 대변한다고 하겠다.²⁰⁾

2) 轉注와 假借에 대한 설명

중국 漢字學界는, 轉注는 학문적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용어 자체를 쓰지 말자고 한다. 교재에 서술된 六書, 그리고 전주와 가차에 대한 진술은 명확하지 않은 곳이 있다. 육서에 대해 “한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一定한 原則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것을 六書라고 부르는데, 象形, 指事, 會意, 形聲, 轉注, 假借 등이 그것이다.”²¹⁾라고 한 교재가 있다. 한자학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진술이다. 우선 六書는 만드는 원리가 아닌 분석 원리이고, 만드는 원리라 하더라도 ‘六書’ 모두를 뭉뚱그려 ‘(한자를) 만드는 원리’라고 한 것은 모순이다. 일반적으로 전주와 가차는 운용원리로 분류한다.

다음은 전주와 가차에 대한 진술이다.

20) 한자학 관련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소홀이 한 곳이 보인다. “중국 한(漢)나라 때 허신(許慎)이 한자의 형태를 분석해서 共通되는 것끼리 모아 놓고 부수라 했다. 나는 1만여 개의 한자를 500여 개로 분류했지.”(안재철외 6인, 『중학교 한문』, ㈜미래엔, 2013, p.15.)라고 하였는데, 『설문해자』는 본래 9천여 자가 수록되었다. 송나라 때 『설문』을 교감하면서 글자를 덧붙였는데, 이를 新附字라 한다. 이를 포함하면 1만여 자가 넘을 수 있다.

21) 김도련외 2인, 『한문 I』, 교학연구사, 1998, p.10.

① 교과서 A²²⁾

轉注 : 어떤 글자에 새로운 뜻을 덧붙여서 사용하는 원리이다. 여기에는 음이 바뀌는 경우와 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다.

度 : 자 도 → 헤아리다 탁	長 : 길다 장 → 우두머리 장
說 : 말씀 설 → 기쁘다 열	樂 : 풍류 악 → 즐겁다 탁

假借 : 어떤 글자의 형태나 음만 빌려서 사용하는 원리이다.²³⁾

음을 빌린 경우	Naraka : 那落(나라), Asia : 亞細亞(아세아)
형태를 빌린 경우	\$(dollar) : 弗(불)

六書를 ‘제자원리’라 하고 이를 ‘창조 원리’ ‘운용 원리’로 나누어, 전자는 ‘기본 생성(상형·지사)’과 ‘결합 생성(회의·형성)’으로, 후자는 ‘파생 생성(전주·가차)’으로 나누었다. 육서를 제자원리라고 하는 것이나, 전주와 가차를 파생 생성으로 보는 것 모두 한어문자학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또한 위 진술은 假借의 범위를 매우 좁게 잡고 있다. 단순한 音借와 形借만을 가차로 보고 있다.

② 교과서 B²⁴⁾

轉注를 ‘이미 만들어 사용하던 글자의 음이나 뜻이 바뀌는 경우, 본래 글자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음이 비슷하고 글자의 형태도 관련 있는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고, 例字로 背를 들었다.

22) 김도련외 2인, 『한문 I』, 교학연구사, 1998, p.12.
 23) ‘형태나 음’을 빌려 사용하는 원리란 音借 뿐만이 아니라 形借까지 가차로 본 것이다.
 24) 이수철·곽치영, 『고등학교 한문』, 정진출판사, 2003, p.15. 김경수, 안재철도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김경수의 3인, 『고등학교 한문』, (주)교학사, 2003, p.14; 안재철외 2인, 『고등학교 한문』, 대한교과서(주), 2003, p.7.)

본래 사람이 서로 ‘등지다’라는 뜻을 가진 ‘北’이 ‘북쪽’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자, 본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과 관련 있는 月(육달월)을 더하여 ‘등지다’는 뜻의 ‘背’를 만들었다.

이의 아무 설명 없이 ‘老, 長, 善, 命, 令, 說, 數, 復, 更, 易’을 例字로 들었는데, 이는 논리적이지 못하다. 전주에 대한 정의의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 위 例字가 전주라는 것은 한자학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다. 대부분 한자는 多義인데, 이들을 분석해보면 本義, 引伸義, 假借義로 구별된다. 위 한자들이 본의 혹은 引伸義로 쓰이면 전주의 정의가 무엇이던 전주와는 상관없다.²⁵⁾

假借에 대해 ‘말이 새로 생겨 음과 뜻은 있으나 그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는 경우에 음이 같은 다른 글자의 모양을 빌려 사용하는 방법’이라 하고, 例字로 女를 들고 “본래 여자라는 뜻의 글자이나 ‘녀’라는 뜻을 가진 글자로 사용”²⁶⁾하는 것이라 하였다. 위 설명은 가차의 원리나 정의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 ‘말이 새로 생겨’는 음성 언어 중에 新詞가 출현하였다는 것이고, ‘음과 뜻은 있으나’는 그 新詞가 나타내는 ‘새로운 뜻’과 新詞의 ‘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는 경우’는 新詞를 나타낼 수 있는 문자언어 즉, 新詞에 해당하는 漢字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글자의 모양을 빌려 사용하는 방법’은 新詞를 나타낼 수 있는 한자가 없기 때문에, 新詞와 독음이 相同 혹은 相近한 한자를 빌려 新詞를 표현하는 방법’이란 것이다. 위 진술 중 ‘음과 뜻은 있으나,’ ‘모양을 빌려’는 가차 용법을 설명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다.

가차는 위 설명처럼 本無其字²⁷⁾일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25) 교과서의 전주에 대한 풀이는 한자를 만드는 원리로 규정한다. 예로 든 글자들을 살펴보면 한자를 새로 만들되 ‘인신의’를 나타내는 글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설도, ‘본의’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설도, ‘가차의’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설도 있다. 전주란 학설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논의를 생략 한다.

26) 이수철·곽치영, 『고등학교 한문』, 정진출판사, 2003, p.15.

27) 본래부터 어떤 新詞를 표현할 한자가 없어 同音, 혹은 近音의 한자를 빌려

詞를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있는데도 同音 혹은 音近의 한자로 쓴 例가 많다. 漢代 복원한 경전 중에는 原字가 아닌 가차자로 기록한 부분이 많다. 이는 漢代 훈고학이 융성하게 된 한 단초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詩』, 『商頌』, “正域彼四方”의 域은 有로 쓰였다. 당시 ‘有’자가 있는데도²⁸⁾ 가차자 域을 썼다. 또, 흔히 보이는 例로 時를 待로, 洗를 先으로, 粒을 立으로, 皙을 折로 쓰기도 한다. 훈고학적 지식이 부족한 우리가 고문을 읽을 때 혼란스러워 하는 가차용법들이다. 이렇게 本字 대신 가차자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詞는 가차자가 本字처럼 쓰이기도 한다. 예컨대 초목의 草, 끝의 端, 책의 策은 艸, 耑, 冊이 本字인데, 지금은 가차자가 本字처럼 통행된다. 가차 현상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한문 독해력 신장에 지장을 준다.

3) 부수속칭의 제시

한자의 부수 명칭을 속칭으로 제시한 교재가 있다. ‘부수로 배우는 한자’에서 부수의 속칭에 대해 “부수는 한자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붙여 부르기도 하는데, 다음은 위치에 따른 대표적 부수들이다.”라고 하였다.

宀(宀) 갓머리 : 家, 安, 宿	口(口) 큰입구름 : 國, 圖, 圓
氵(水) 삼수변 : 浸, 沐, 漂	火(火) 연화발 : 然, 熱, 爆
阝(阜) 언덕부변 : 除, 隊, 障	广(广) 집엄 : 庫, 店, 廢
阝(邑) 우부방 : 郡, 那, 郭	辵(辵) 책받침 : 過, 送, 透 ²⁹⁾

위 진술 중 “다음은 위치에 따른 대표적 부수들이다”는 비문이다. 속칭에 대한 정확한 한자학적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오해이다.

표현하는 방법.

- 28) 域과 有는 현재의 한자음으로는 近音이 아니지만 上古音이 雙聲, 對轉으로 상당히 음이 가까웠다.
- 29) 이수철·곽치영, 『고등학교 한문』, 정진출판사, 2003, p.88. ‘책받침’은 ‘착받침’이 옳다.

‘다음은 부수의 위치에 따라, 속에서 부르는 (부수)명칭들이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필자는 부수 속칭이 일본에서 수입되었으며, 漢字學的인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수속칭을 쓰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4) 한자의 義와 義項의 적용이 부적절

한자, 한자어, 문장의 교수학습에 한자의 義項[뜻] 적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가 있다. 훈고학은 문장의 소통을 주목적으로 한다. 소통의 대상은 한자, 문구, 문장 전체가 될 수 있고, 소통은 자전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자전은 수많은 한자를 어떤 원칙, 어떤 순서에 의해 배치할 것인가, 배치된 한자는 어떤 순서에 의해 의항[뜻]들을 제시할 것인가 또, 의항[뜻]은 어떤 것을 제시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자전에서 한자의 의항[뜻] 배치는 本義, 引伸義, 假借義 순으로 해야 한다.³⁰⁾ 이는 본의를 알면 인신의를 쉽게 이해하고, 가차의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代表訓 논의는 이런 훈고학적인 원칙 없이 각자의 주장을 편다. 어떤 경우는 假借義를 대표훈으로 제시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來’처럼 가차의(오다)가 본의처럼 쓰이는 경우는 예외이겠지만 當을 ‘그’로, 適을 ‘마침’으로 제시하지는 것은 훈고학적 기반이 없는 경험칙의 주장이다.

자전의 의항은 훈고학적인 기반 위에 제시되어야 한다. 자전에 붙어 있는 많은 의항들은, 처음에는 하나의 뜻만이 기록되었다가³¹⁾ 한자의 뜻이 引伸되고, 가차의가 붙어나면서 확장된 것이다. 인신의, 가차의는 훈고학자들이 생산한 訓詁書와 그들의 註釋에서 채집한 것이다. 자전에서 훈고학자들의 註釋義를 채집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다. 훈고학자들은 어떤 문장을 해석할 때 ‘隨文釋義’을 하기도 한다. 즉, 문장에 따라 한자

30) 본의를 잃어버렸거나 본의를 알 수 없는 한자가 있다. 이럴 경우 引伸義를 앞에 배치해야 한다.

31) 『설문해자』가 그렇다. 『설문해자』는 하나의 한자에 거의 하나의 뜻[본의]만을 제시하였다.

의 자의와 상관없이 문의에 맞춰 해석하기도 한다. 이 隨文釋義에 의해 생산된 字義를 채취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기존 의항들과 서로 구별되는 概括義를 취하고, 특정한 상황에 쓰인 비유적 표현은 배제해야 한다. 예컨대 離騷의 ‘美人’이 楚 懷王을 나타낸다 하여 자전에 ‘회왕’이라는 의항을 등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문 교재에서도 문장이나, 한자어 해석에서 隨文釋義한 뜻을 제시하면 안 된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³²⁾ 概括義를 제시할 것을 주문하는 것은, 개괄의를 알아야 서로 다른 語境 속에 사용한 한자의 의의를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隨文釋義에 의한 뜻[의항] 제시보다 더 위험한 것은 뜻[의항]을 잘못 제시하는 것이다. 아래는 의항제시가 부적절 하거나 의문이 드는 것들이다.

① ‘薄集’의 薄

登龍門에 나오는 ‘江海大魚 薄集龍門下數千’의 薄은 본의가 ‘풀이 무더기로 자람’이다. 이로부터 ‘밀집’이라는 뜻이 인신되었다. 당연히 이곳은 ‘밀집’으로 해석해야 하고, 뜻도 밀집으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재는 ‘모이다.’로 해석하였다.³³⁾

『說文·艸部』에 “薄은 나무가 무더기로 자라는 것이다. (중략) 艸가 의미를 薄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旁各切[박]’이다.[薄, 林薄也 … 從艸溥聲. 旁各切]”³⁴⁾라고 하였다. 薄의 본의 ‘초목 叢生’으로부터 ‘밀집, 긴박, 엷다’의 引伸義가 나왔다. 초목이 무더기로 자람으로부터 밀집, 긴박이 나왔고, 뻥뻥하게 자라면 초목이 엷어지기 때문에 ‘엷다’란 인신의가

32) 이상의 진술은 한연석, 「教育用漢字 代表訓 설정에 관한 一考」(『漢文古典研究』 제24집, 韓國漢文古典學會, 2012, pp.359-363.)를 참조하였다.

33) 김상홍외 3인, 『고등학교 한문』, ㈜교학사, 2002, p.44.; 이명학외 3인, 『고등학교 漢文』, 두산(주), 2004, pp.42-43. 薄은 ‘모이다’로 쓰였다고 하고, ‘薄集龍門下數千’을 ‘용문 아래에 수천 마리가 모여들었다.’로 해석하였다.

34) 허신, 『說文解字』, 中華書局, 1992, p.23. (이하 『說文解字』의 출처는 생략한다.)

나왔다. 위 문장은 ‘강과 바다의 큰 고기들이 용문 아래에 뻑뻑하게 모이길³⁵⁾ 수천이로되’ 정도로 해석하고, 의항은 ‘밀집’으로 제시해야 한다.

② ‘未敢道達其情’의 道達

咸興差使의 “前後相望之使 未敢道達其情”의 ‘道達’을 하나의 단어로 볼 것인지, 축자 해석 할 것인지, 導達의 가차인지 고려해야 한다. 교재는 ‘말하여 전달하다.’로 해석하였다.³⁶⁾

‘道達’은 『漢語大詞典』에는 출현하지만 우리 국어나 한자사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漢語大詞典』은 ‘설명하다.’라고 하였다. 『詩』, 「鄘風·牆有茨」에 “中藹의 말은 설명할 수가 없다.[中藹之言, 不可道也]”라고 하였다. 또, 『左傳』, 「襄公三十一年」, “내가 크게 터져 피해를 입히면 사람을 다치게 함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내가 능히 구제할 수 없다면 물길을 조금 터놓아, 하여금 소통시키는 것만 못할 것이다.[大決所犯, 傷人必多, 吾不克救也. 不如小決使道.]”의 杜預 注에 “道는 ‘통하다’이다.[道, 通也.]”라고 하였다.

위 교재의 해석처럼 축자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우리 국어나 한문 사전에 語形이 매우 유사한 ‘導達’, ‘到達’이 나오기 때문에 가차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道達의 道를 導의 가차로 보는데 문제가 없다. ‘導達’은 葛洪의 『抱朴子』, 「名實」에 “그렇기 때문에 명석한 임금 은 어진 사람을 초치함에 부지런하고 (중략) 막혔던 것을 소통시키고, 가려지는 것을 방지한다.[故明君勤於招賢 … 導達凝滯而嚴防壅蔽]”라고 하여, ‘소통하다’로 썼고, 우리 사전에는 ‘윗사람이 모르는 事情을 아랫사람이 가끔 넌지시 알려 주는 일’³⁷⁾ 이라고 하였다. 축자 해석을 한다해

35) 薄의 인신의 ‘밀집’을 ‘모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 단, 뒤에 ‘모이다’의 ‘集’이 있으며, 자전의 의항에 ‘모이다’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항은 ‘밀집’으로 제시해야 한다.

36) 이명학외 3인, 『고등학교 漢文』, 두산(주), 2004, p.59.

37) 민중서관편집부, 『漢韓大字典』, 民衆書館, 1998, p.607.

도 ‘導達’, ‘到達’이 국어에 있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 류준경 교수는 문집총간의 예를 들어 ‘전달하다.’가 적당하다고 하였다.³⁸⁾ 道達이 아직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류교수의 지적대로 ‘전달하다’란 의항으로 등재될 것을 기대한다.

③ 乃, 都의 義項

乃와 都의 의항[뜻] 적용이 부적절한 곳이 있다.

- 乃 : 이다 → 乃實創國之神迹(실로 국가를 세운 신이한 자취이다.)
- 都 : 아름답다 → 我國本聖人之都(우리나라의 근본인 성인의 아름다움)³⁹⁾

위 문장에서 ‘乃’의 의항을 ‘~이다’로 제시한 것은 미진하다. 단순한 ‘~이다’보다는 ‘곧(혹은 바로)’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史記』, 「高祖本紀」에 “呂公의 딸이 곧 여후이다.[呂公女乃呂后也]”라고 하여 ‘곧’으로 썼다. 이곳의 ‘乃’는 ‘이에’도 가능하지만 ‘곧’으로 함이 좋을 듯하다.

또, 위 교재는 都의 의항을 ‘아름답다’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곳은 ‘나라’가 옳다. 『廣雅』, 「釋詁四」에 “都는 國이다.[都, 國也]”라 하였고, 『逸周書』, 「職方」, “職方氏掌天下之圖, 辯其邦國都鄙”의 孔晁 注에 “國을 都라 한다.[國曰都]”라고 하였다. 唐 柳宗元의 「弔屈原文」에도 “나라가 하는 대로 맡기고 이익을 좇음은, 나는 선생이 차마 하지 못할 것을 안다.[委古都以從利兮, 吾知先生之不忍]”라고 하였다.

『逸周書』의 都鄙는 단순히 해석하면 ‘도시(도읍지)와 변방’이지만 중국의 분봉제도를 고려하면 역시 국가라는 개념을 가리킨다. 東周 이후, 분봉된 나라가 再 분봉되고 또, 제후국들의 질서가 혼란해지면서 國과 家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위 都鄙의 都는 봉읍국가를 나타낸다. 都를 ‘국가’라고 해석한 교재도 있다.⁴⁰⁾

38) 류준경, 『2014年度 韓國漢文古典學會 冬季學術大會 發表資料集』 토론문, 韓國漢文古典學會, 2015. 01. 16, p.62. 참조.

39) 최상익외 2인, 『漢文古典』, (주)금성출판사, 2003, p.83.

④ 晉의 義項

晉陽의 ‘晉(진)’의 의항을 ‘나아가다.’로 제시한 교재가 있다.⁴¹⁾ 晉은 여러 설이 있지만, 갑골문을 참고하면 화살 꽃이에 화살을 꽂아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본의는 ‘꽂다’이다. 본문의 晉陽이 중국의 晉陽과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중국 산서성 太源市 남서쪽에 晉水가 있다. 이로부터 晉陽이란 지명이 유래되고, 이를 기반으로 晉나라가 있었다. 현재 晉은 山西省의 簡稱으로도 쓰인다. 그렇다면 晉을 水名, 혹은 地名으로 밝혀줌이 좋을 듯하다. 晉의 義項 ‘나아가다’는 晉陽과 어울리지 않는다.

⑤ 襲의 의항

‘신습한자’ 난에 襲의 字義를 ‘엄습하다, 덧입다’ 두 개를 제시하고, ‘덧입다’를 世襲에서의 의항으로 제시한 교재가 있다. 하지만 페이지를 달리 한 곳의 한자어 世襲을 설명할 때에는 “襲(습) 세습하다 : 世襲(세습)”⁴²⁾으로 제시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덧입다’나 뒤에서 제시한 ‘世襲’의 ‘세습하다’란 의항은 둘 다 적절치 않다. ‘덧입다.’는 한자어의 뜻과 어울리지 않고, ‘세습하다’는 사전에 없는 의항을 편의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곳은 ‘이어받다’가 옳다.

⑥ 夷의 의항

「養竹記」의 “君子見其節이면 則思砥礪名行하여 夷險一致者라”의 해

40) 김경수의 3인, 『고등학교 한문』, (주)교학사, 2003, p.233. 본 교재는 “欲使夫天下로 知我國이 本聖人之都耳라.”를 “저 천하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였다.

41) 김상홍의 3인, 『고등학교 한문』, (주)교학사, 2002, p.164. ‘28. 의로운 삶 論介’의 본문 “論介 … 遂落籍爲妓라가 爲縣監黃進所愛러니 及晉陽之役에 黃公 殉難이라.”의 晉에 대한 의항이다.

42) 김상홍의 3인, 『고등학교 한문』, (주)교학사, 2002, p.176.

석을 ‘君子가 대나무의 마디(절개)를 보면 자기 이름과 행실을 같고 닳아 역경과 순경이 한결같은 것을 생각한다.’고 하고,⁴³⁾ ‘신습한자’ 난에는 ‘夷 큰활 이’로 제시한 교재가 있다.⁴⁴⁾ 『說文』에 “夷는 ‘평이’이다.[夷 平也]”라고 하였다. 위 해석 ‘순경(평탄)’과 부합되기 때문에 ‘큰활’이란 의 함은 적합하지 않다.

5) 字源 분석이 부적절한 경우

① 嘗, 天, 鳥, 夕, 多의 자원 분석

• 嘗의 자원

‘嘗’의 자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 교재가 있다.

嘗은 음식물에 혀를 올려놓아[尙 : 숭상할 상] 맛[旨 : 맛 지]을 본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尙은 본래 물건을 나누어 남에게 더해 준다는 의미의 글자였다. 이후에는 마음으로 ‘숭상하다’, ‘높이다’, 또는 ‘오히려’, ‘일찍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일찍이’는 예전의 경험을 말할 때 쓰는 말이다. 경험한 것은 맛본 것과 같다.⁴⁵⁾

嘗을 회의자로 분석하였다. 어떤 전적을 참고했는지 알 수 없지만 漢字學界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분석이다. 『說文』, 「旨部」에 “嘗은 입으로 맛보는 것이다. 旨가 뜻을 尙이 소리를 나타낸다.[嘗, 口味之也. 從旨, 尙聲]”라고 하여, 본의는 ‘맛보다’이고 旨가 義符, 尙이 성부인 형성자라고 하였다.

尙 역시 참고 전적을 가늠하기 어렵다. 尙은 갑골문에 보이지 않는다. 『說文』, 「八部」에 “尙은 ‘덧붙이다’, ‘여럿’이다. 八이 뜻을 尙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時亮切[상]’이다.[尙, 曾也. 庶幾也. 從八尙聲. 時亮切]”

43) 안재철외 2인, 『고등학교 한문』, 대한교과서(주), 2003, p.124.

44) 안재철외 2인, 『고등학교 한문』, 대한교과서(주), 2003, p.122.

45) 이희목외 3인, 『고등학교 한문』, ㈜천재교육, 2003, p.81.

라고 하였다. 금문에는 ‘윗사람을 높이다’ ‘더하다’ ‘영원하다’ ‘通常’ 등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였다.⁴⁶⁾

• 天의 자원

天의 자원을 ‘大 - 天(가장 큰 것, 一 + 大)’로 분석한 교재가 있다.⁴⁷⁾ 天이 大와 一(일)로 구성되었다는 것인데, 정확하지 않다. 갑골문은 ‘𠄎’⁴⁸⁾처럼 머리 부분을 강조하여 그래서 ‘하늘’을 나타내었다. 후에 상부의 ‘口’가 ‘一’로 演變되어 ‘天’으로 썼다. 해서 자형을 보고 ‘一(일 : 가장) + 大’로 분석하는 것은 자원과 부합되지 않는다.

• 島의 자원

島의 자원을 “島(섬도) : 鳥(새) + 山(산) - 새가 바다를 날다가 쉬어 가는 산”⁴⁹⁾으로 분석한 교재가 있다. 島는 『說文』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자형분석이 어렵지만, 鳥가 聲符인 형성자이다. 『書經』, 「禹貢」, “島夷皮服”의 孔穎達 疏에 “島는 바다에 있는 산이다.[島是海中之山]”라고 하였다. 이는 島는 鳥가 성부인 형성자라는 것이다. 島와 鳥의 上古音を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島 : 상고음 端紐 幽韻 上聲 중고음 端紐 皓韻 上聲
鳥 : 상고음 端紐 幽韻 上聲 중고음 端紐 篠韻 上聲⁵⁰⁾

島와 鳥는 상고음이 雙聲 疊韻의 同音이기 때문에 島는 山이 義符, 鳥가 聲符인 형성자이다. 단, 성부 鳥는 자형이 생략되었다.

46) 方述鑫等編, 『甲骨金文字典』, 巴蜀書社, 1993, pp.50-51.
47) 최상익외 3인, 『漢文 I』, 금성교과서(주), 1996, p.13.
48) 于省吾, 『甲骨文字詁林』(全4冊), 中華書局, 1996, p.210.
49) 최상익외 3인, 『漢文 I』, 금성교과서(주), 1996, p.33.
50)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大學出版社, 1986, p.155, p.167.

• 夕의 자원

夕의 자원에 대해 “月’로부터 ‘夕’이 만들어짐.”이라 하고, “달[月]에서 획 하나를 줄여[夕], 달이 그 빛을 온전히 다 드러내지 못하는 때[저녁]를 나타낸다.”⁵¹⁾라고 하였는데, 어떤 전적을 참고했는지 알 수 없다. 『說文』, 「夕部」에 “夕은 저녁을 나타낸다. 달이 반쯤 나온 것을 그렸다.[夕, 莫也. 從月半見]”라고 하였지만, 갑골문의 月과 夕은 자형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단지 문장에서의 쓰임[文義]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²⁾

• 多의 자원

多의 자원에 대해 “多 ← 夕 + 夕(겹쳐지는 저녁 → 끝이 없다. → 많다.)”⁵³⁾로 분석한 교재가 있다. 多는 자형이 夕과 닮았지만 夕과 전혀 관계없다. 王國維는 “多는 두 개의 ‘肉’자로 구성됐고, 회의이다.[多從二肉會意]”⁵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姚孝遂는 “王國維와 林義光 모두 ‘多’자는 두 개의 夕자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옳다. 그 중 왕국유의 설이 더 타당하다.[王國維, 林義光均以爲‘多’字不當從重夕是對的. 王說較優]”⁵⁵⁾라고 하였다. 즉, 多는 두 개의 ‘夕’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은 月(肉)에서 한 획이 생략된 자형을 옆으로 뉘어 쓰고, 중첩시킨 것이다.

② 折, 擴, 種, 擅, 示의 자원 분석

• 折의 자원

折의 자원을 “折(절) : 손[手 → 扌]으로 큰 도끼[斤]를 들고 나무를 자른다[𠂔]는 뜻에서 ‘자르다, 끊다, 꺾다’는 뜻이 됨.”⁵⁶⁾이라고 분석한 교

51) 최상익외 3인, 『漢文 I』, 금성교과서(주), 1996, p.152.

52) 于省吾, 앞의 책, p.1120. 참조.

53) 최상익외 3인, 『漢文 I』, 금성교과서(주), 1996, p.152.

54) 于省吾, 위의 책, p.3324. 재인용.

55) 于省吾, 위의 책, p.3324.

재가 있다.

折의 본의 ‘자르다, 끊다, 꺾다’라는 풀이는 옳다. 하지만 이를 도출한 자형 분석은 오류이다. 𠄎는 손으로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다. 折의 왼쪽 ‘扌’는 ‘손’이 아니라 잘려진 나무를 그린 것이다. 자형연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갑골문은 𠄎⁵⁷⁾와 𠄎⁵⁸⁾로 썼다. 전자는 도끼[𠄎]로 나무를 자른 모습 [𠄎]을 그렸고, 후자는 역시 도끼[𠄎]로 나무[𠄎]를 자른 모습[𠄎]과 도끼를 잡고 있는 손[扌]까지 그렸다. 姚孝遂는 按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⁵⁹⁾

𠄎 : 그 모양은 도끼로 나무를 자른 모습이지 도끼로 풀을 벤 모습이 아니다.
[其形乃從斤斷木, 而非從斤斷艸]

𠄎 : 글자는 손으로 도끼를 잡고 나무를 베는 것을 그렸다. ‘𠄎’는 나무가 잘라진 모습을 그렸으나 篆文은 잘못 변하여 나무를 ‘艸’로 썼다. 이는 ‘折’자의 복잡한 자형이다.[字從又持斤斷木. ‘𠄎’象木之折, 篆文譌變爲從‘艸’. 此乃‘折’字之繁構”

요효수는 𠄎⁵⁸⁾는 𠄎⁵⁷⁾의 변체이고, 도끼를 잡고 있는 손을 더 그린 것이라고 한다. 또, 나무의 모습이 소전 단계에서 艸로 譌變되었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折의 왼쪽 ‘扌’는 ‘손’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잘라진 나무의 모습 ‘𠄎’가 譌變된 것이다.

• 擴의 자원

擴의 자원을 “擴 : 손[扌=手]을 이용하여 넓게 하다[廣]. → ‘넓히다’”⁶⁰⁾

56) 김도련외 2인, 『한문 I』, 교학연구사, 1998, p.20.
57)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前4·8·6’, 中華書局, 1965, p.22.
58) 于省吾, 앞의 책, p.2525.
59) 于省吾, 위의 책, pp.2524-2525.
60) 최상익외 3인, 『고등학교 한문』, (주)금성출판사, 2002, p20.

로 분석한 교재가 있다. 擴은 『說文』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석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手와 廣의 회의란 분석은 위험하다. 擴의 上古음을 찾을 수 없어 음운학적인 고증을 할 수 없지만, 擴은 廣이 성부인 형성일 가능성이 높다.

• 種의 자원

種의 자원을 “種 : 禾[벼=곡식] + 重[많다] → 곡식을 많이 하는 것. ‘씨앗’⁶¹⁾으로 분석한 교재가 있다. 하지만 『說文』, 「禾部」에 “種은 먼저 심고 후에 익는 것이다. 禾가 의미를 重이 소리를 나타낸다.[種, 先種後熟也, 從禾 重聲]”라고 하여, 본의가 ‘종자’인 형성자라고 하였다.

위 교재는 한자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전고를 참고한 곳이 있다. “楊 : 나무[木] + 번성하여 잘 되다[易] → ‘넋버들’”, “鍊 : 쇠[金] + 가리어 뽑다[東] → 철광석에서 철의 정수(精粹)만 가리어 뽑는 것. ‘쇠 불리다’, ‘익히다’⁶²⁾”, “恥 : 귀[耳] + 마음[心] →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어 귀가 붉어지는 것. ‘부끄러움’, ‘부끄러워하다’⁶³⁾도 그런 예에 속한다.

• 擅의 자원

“山水之勝 擅關東”을 “산수의 빼어남이 관동에서 으뜸이어서”로 해석하고도, ‘擅(천)’의 의향을 ‘멋대로’로 제시한 교재가 있다.⁶⁴⁾ 이곳 擅은 ‘독차지하다.’가 바른 의향이다. 『說文』, 「手部」에 “擅은 ‘오로지하다(독차지하다)’이다.[擅, 專也]”라 하였고, 『戰國策』, 「秦策三」에 “또 옛날 中山 땅은 사방 500리가 되었는데 조나라가 오로지 그것을 차지하였다.[且昔者, 中山之地, 方五百里, 趙獨擅之]”라고 하였다.

61) 최상익외 3인, 『고등학교 한문』, (주)금성출판사, 2002, p.32.

62) 최상익외 3인, 『고등학교 한문』, (주)금성출판사, 2002, p.36.

63) 최상익외 3인, 『고등학교 한문』, (주)금성출판사, 2002, p.40.

64) 이희목외 3인, 『고등학교 한문』, (주)천재교육, 2003, p.93.

• 示의 자원

示의 자원에 대해 “示의 가로획 두 개는 하늘을 본뻗고, 세로획 세 개는 해·별·달의 빛이 아래를 비취 밝힘을 본뻗었다.”⁶⁵⁾라고 한 교재가 있다. 示는 본래 위패를 그린 것으로 갑골문에서는 ‘T’와 같은 모습으로 썼다. 여기에 술을 뿌린 방울들이 오늘날의 示와 같은 자형으로 演變 되었다.⁶⁶⁾

③ 草, 路, 地, 臚, 歲, 邦의 자원 분석

• 草의 자원

草와 艸의 자원에 대해 “풀 초(草)는 본래 모양은 초(艸)이다. (중략) 草와 초(艸)는 서로 뜻이 같기 때문에 옛 어른들은 두 글자를 서로 통용하기도 하였다.”⁶⁷⁾라고 한 교재가 있다. 하지만 草의 자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說文』, 「艸部」는 “草는 상수리이다. 한편으로는 나무통을 그린 것 이라고도 한다. 艸가 의미를 무가 소리를 나타낸다.[草, 草斗, 櫟實也. 一曰象斗子. 從艸早聲.]”라고 하였는데, 학계에 공인된 해석이 아니다. 古典에서는 草本植物의 總稱, 나무 등으로 썼다. 艸의 가차인데 本字처럼 쓰고 있다.

• 路의 자원

路의 자원에 대해 “路 : 각(各) 사람의 발”⁶⁸⁾이라고 한 교재가 있다. 상당히 과격적인 해석이나 근거가 없다. 『說文』, 「足部」에 “路는 길이다. 足과 各으로 이루어졌다.[路, 道也. 從足, 從各]”라고 하여, 회의라고 하였다. 路의 各은 본의가 ‘각각’이 아닌 ‘들어오다’이다. 갑골문에서는 出과 구성원리가 같다. 出과 各은 모두 ‘움집과 발’을 그린 것인데, 出은 발을 움집에서 나가는 모습, 各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⁶⁹⁾

65) 이희목외 3인, 『고등학교 한문』, (주)천재교육, 2003, p.112.
 66) 于省吾, 앞의 책, p.1063. 참조.
 67) 이희목외 3인, 『고등학교 한문』, (주)천재교육, 2003, p.134.
 68) 이희목외 3인, 『고등학교 한문』, (주)천재교육, 2003, p.177.

• 地의 자원

地는 ‘뱀이 우글거리는 곳’⁷⁰⁾이라 한 교재가 있는데, 地는 也가 성부인 형성자이다.

• 詹의 자원

詹을 “詹(담) → 月[肉 살 육] + 詹[이를 침]”으로 분석하고, “月[肉 살 육]은 ‘신체’라는 뜻을 나타내고 詹[이를 침]은 ‘담’을 나타내어 ‘쓸개’라는 뜻이 됨”⁷¹⁾이라 분석한 교재가 있다. 하지만 『說文』, 「八部」에 “詹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言, 八, 尸으로 이루어졌다.[詹, 多言也. 從言, 從八, 從尸]”라고 하여, 詹의 본의가 ‘多言’이라고 하였다. 段玉裁, 『說文解字注』는 “詹은 마땅히 ‘尸聲’이라고 해야 한다. (중략) 尸과 詹은 同字이고, 同音이다. 詹은 尸이 소리를 나타낸다.[此當作尸聲 … 尸與詹同字同音. 詹, 尸聲]”⁷²⁾라고 하였다. ‘詹(담)’의 자형 분석 ‘月(肉) + 詹(침)’은 정확하다. 詹은 詹(침)이 성부인 형성자이다. 그리고 詹(침)은 본의가 ‘多言’이지 ‘담[쓸개]’이 아니다.

• 歲의 자원

歲의 자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교재가 있다.

歲는 본래 큰 도끼의 상형이다. 뒷날 변형되어 도끼를 뜻하는 월(戔)과 두 개의 지(止)로 이루어진 모양이 되었다. 걸어가며 날카로운 연장으로 무엇인가를 ‘베다’는 뜻으로 쓰이다가 곡식은 매년 한 차례 베어 수확하므로 ‘한 해’라는 뜻도 생겨났다.⁷³⁾

69) 한연석, 「根源聲符 丰, 各을 활용한 漢字指導法」, 『漢字漢文教育』 제24집,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2010, p.668. 참조.

70) 이희목외 3인, 『고등학교 한문』, (주)천재교육, 2003, p.231.

71) 김경수의 3인, 『고등학교 한문』, (주)교학사, 2003, p.29.

72)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49.

위 설명 중 歲는 본래 도끼를 상형한 것이란 설명은 정확하다. 하지만 ‘한 해’란 뜻을 갖게 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갑골문에서의 용법은 첫째 ‘今歲’ ‘來歲’ 둘째 歲[쫘개다 귀], 셋째 제사 이름 등으로 쓰였다. 첫째의 歲는 ‘한 해’란 의미보다는 ‘수확 철’이란 의미로, 둘째의 ‘歲’는 제사에 쓰이는 희생 종류를 나타내었다.(주로 소, 양, 사람)

• 邦의 자원

邦의 자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교재가 있다.

邦은 최초로 나무[木]와 밭[田]이 결합된 글자이었다. 나중에 밭은 사라지고 나무만 남게 되었는데, 이 나무는 나라끼리의 영토를 구분하기 위해 경계선에 심었던 키 큰 나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을 뜻하는 읍[邑, 阡]을 덧붙였다.⁷⁴⁾

邦의 초문은 ‘丰’이다. 丰은 밭[田]과 나무[木]의 결합이 아닌, 흙[土]과 나무[木]의 결합이다. 丰은 갑골문에서 丰, 丰, 丰로, 금문은 丰로, 소전은 부로, 예서는 ‘丰’⁷⁵⁾로 썼다. 丰[丰]은 흙(●) 위에 심겨진 나무[丰]를 그린 것이다. 후에 丰에 ‘나무를 심는 행위’를 나타낸 ‘寸’⁷⁶⁾을 첨가한 것이 封이다. 고대 봉건제에서 분봉해줄 때 나무를 심어 경계를 삼았기 때문에 丰(封)은 ‘분봉하다,’ ‘封諸侯’로 또, 그들이 다스리는 國, 邦, 社稷으로 다시, 흙을 복돋아 심었기 때문에 ‘복돋다,’ ‘두텁다,’ ‘크다’의 인신 의미가 생겼다.

73) 김언종의 2인, 『고등학교 한문 I』, (주)교학사, 2012, p.143.
 74) 김언종의 2인, 『고등학교 한문 I』, (주)교학사, 2012, p.165.
 75) 갑골문은 『甲骨文編』(앞의 책, p.275.); 『甲骨文字詁林』(앞의 책, p.1327.)에서 채록. 金文은 容庚 編著, 『金文編』(中華書局, 1992, p.423), 隸書는 方述鑫等 編, 『秦漢魏晉南北朝字形表』(四川辭書出版社, 1985, p.404.)에서 채록.
 76) 又와 同義이다. 又는 본래 손을 나타내었다.

갑골문에서 肅을 나타내던 肅은 금문에서 뾰족하고 뾰뚱하게 변했고, 소전[𠄎]에서는 하나의 횡선으로 演變되었으며, 隸書 丰은 소전 𠄎의 彎曲筆을 가로획으로 書寫한 것이다. 위 설명처럼 ‘丰’은 ‘나중에 받은 사라지고 나무만 남은 것’이 아니다. 𠄎에서 肅을 나타내던 肅은 갑골문에서 獨體로 쓸 때는 ‘Q’로 썼는데, 금문에서는 ‘上’로, 예서에서는 ‘土’로 演變되었다. 이것이 상부 나무의 演變體 ‘𠄎’와 결합하여 ‘圭’로 쓰기도 하였다. 封이 그런 자형을 유지하고 있다.⁷⁷⁾

이상 封, 邦의 초문은 ‘𠄎[丰]’이고 후에 각각 ‘寸’과 ‘邑(邑)’을 첨가하여 ‘분봉하다’와 ‘나라’로 분화되었다.

3. 訓詁學과 音韻學 방면의 적용 현황⁷⁸⁾

1) 훈고학 방면의 적용 현황

‘광개토왕 비문’을 소개하고 일본과 한국의 첨예한 해석 논쟁을 소개한 교재가 있다. 교재는 일본의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의 해석의 문제점과 한국의 ‘김석형·김영하’의 해석의 문제점을 각각 논리적으로 분석 하였다.⁷⁹⁾ 물론 일본의 任那日本府說의 맹점도 함께 소개하는데, 이는 한문교과서에서 지금까지 거의 보지 못했던, 훈고학적 접근을 최초로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암집에 나온 화담선생과 맹인의 이야기 ‘還閉汝眼’ 중 “扣相信步即到[눈을 감고 지팡이로 더듬으며 발걸음에 의지하니 곧 도착하더라.]”의 ‘相’을 ‘지팡이’⁸⁰⁾로 제시한 교재가 있다. ‘지팡이’는 ‘맹인을 안내하는 사

77) 한연석, 앞의 논문, 2010, pp.656-660. 참조.

78) 음운학이나 훈고학을 논함에 漢字學처럼 ‘적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를 따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이 방면을 독립적으로 다룰 만큼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이었다.

79) 심표섭외 4인, 『고등학교 한문 I』, (주)도서출판 대학서림, 2012, pp.96-99.

80) 송제소의 4인, 『고등학교 한문 I』, (주)다락원, 2012, p.154.

람'으로부터 '隨文釋義'한 것이다. 충분히 의역할 수 있지만 사전에는 '지팡이'란 뜻이 없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荀子』, 「成相」에 “임금에게 어진 사람이 없는 것은 소경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으니 그 얼마나 마음 둘 바가 없겠는가.[人主無賢, 如瞽無相, 何佞佞.]”라고 하였고, 『禮記』, 「仲尼燕居」에 “나라를 다스림에 禮가 없음은 비유컨대 소경에게 안내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으니 허둥허둥 어디를 갈 수 있겠는가.[治國而無禮, 譬猶瞽之無相與, 佞佞乎其何之.]”라고 하였으며, 『周禮』, 「春官·眡瞭」, “眡瞭, 掌凡樂事, 播鞀擊頌磬 笙磬, 掌大師之縣, 凡樂事相瞽.”의 鄭玄 注에 “相은 부축하는 사람을 가리킨다.[相, 謂扶工.]”라고 하였다.

이처럼 相은 ‘소경을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은 있어도 ‘지팡이’란 뜻은 없다. 위 문장에서 ‘相’은 지팡이란 뜻으로 쓰였고, 이 ‘지팡이’는 도와주는 사람으로부터 인신된 것만은 분명하다. 相을 먼저 ‘소경 안내인’이라 표시하고 이곳은 ‘지팡이’로 의역됨을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다.

성어 ‘緣木求魚’의 緣을 ‘쫓다.’⁸¹⁾로 풀이한 교재가 있다. 이곳의 緣은 ‘오르다’가 적합한 義項이다. 緣의 ‘오르다’는 본 성어의 출처인 『孟子』, 「梁惠王上」 뿐만이 아니라 『三國志』, 「魏志·鍾會傳」의 “牙門과 郡守가 각각 그 지붕으로 올라 밖으로 나와 병졸들과 서로 만났다.[牙門 郡守各緣屋出, 與其卒兵相得.]”에서도 썼다.

緣의 ‘오르다’는 본의 ‘옷의 가장 자리에 실시한 장식’에서 인신된 것이다. 『說文』, 「糸部」에 “緣은 옷 가장자리의 장식이다. 糸가 의미를 象이 소리를 나타낸다.[緣, 衣純也. 從糸, 彖聲.]”라고 하였다. 의복에서 손목과 목 등의 가장자리를 쪽 따라 장식하는 것으로부터 따라가다, ‘따라가다’로부터 ‘오르다’가 인신되었다. 同源字 沿을 보면 인신을 이해할 수 있다. 沿은 굽이치는 물가를 쪽 따라 내려가는 것이다. 이로부터 가장자리, 따르다, 옷의 가장자리의 박음질, 인연 등으로 인신되었다. 즉, 緣과

81) 이명학외 2인, 『漢文 I』, 을유문화사, 2001, p.10.

거의 동일한 의미 범주를 나타내는데, 이는 이들의 어원이 같기 때문이다. 同源字는 音近義通해야 한다. 이들의 독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緣 : 상고음 余紐 元韻 陽平聲 중고음 余紐 仙韻 平聲
 沿 : 상고음 余紐 元韻 陽平聲 중고음 余紐 仙韻 平聲⁸²⁾

緣과 沿의 상고음은 雙聲 疊韻의 同音이다. 緣은 의복의 가장자리를 쪽 따라 장식하는 것이고, 沿은 굽이치는 물가를 쪽 따라 가는 것이다. 同源字를 언급한 것은 緣이 ‘오르다’라는 義를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어문자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2) 음운학 방면의 적용 현황

‘獻諸子罕’의 ‘諸’에 대해 “之於의 의미로 흡은 ‘저’. ~에 그것을”을 나타낸다고 한 교재가 있다.⁸³⁾ 諸의 ‘之於의 의미’란 표현은 부적절한 진술이다. 諸는 ‘之於’ 두 글자의 음을 축약하여 하나의 글자로 나타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저’로 읽는다. ‘之於’ 두 글자를 빨리 읽으면 ‘저’가 된다. 諸는 上古, 中古음이 章紐, 魚韻⁸⁴⁾으로 擬音하면 ‘저’이다.

‘광개토왕 비문’ 중의 ‘百殘’을 “백제를 적대시하고 비하한 표현”이라 한 교재가 있다.⁸⁵⁾ ‘百殘’은 ‘百濟’를 적대시하고 비하한 뜻도 있겠지만, 사실 百濟의 또 다른 音譯이다. 동일 지명, 국명, 인명, 관명 등에 대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전적이 서로 다르게 기록한 경우가 많다. 이는 시간, 공간, 기록자의 다름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발생한 것으로, 특히 한자음의 변화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殘’과 ‘濟’의 음운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82) 郭錫良, 앞의 책, p.199.

83) 심표섭외 4인, 『고등학교 한문 I』, (주)도서출판 대학서림, 2012, p.62.

84) 郭錫良, 앞의 책, p.94.

85) 심표섭외 4인, 『고등학교 한문 I』, (주)도서출판 대학서림, 2012, p.98.

殘 : 상고음 從紐 元韻 陽平聲 중고음 從紐 寒韻 平聲 반절 昨干切
濟 : 상고음 精紐 脂韻 上聲 중고음은 精紐 齊韻 上聲 반절 子禮切⁸⁶⁾

殘과 濟는 상고음이 旁紐(從紐와 精紐), 旁對轉의 近音이기 때문에 音譯으로 보아도 가능하다.

III. 結語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생산된 한문교재는(2012~3년 출간) 7차 교육과정에 의해 생산된 교재에 비해 한어문자학 방면의 진술이 빈약하다. 이는 교육과정에 의한 것이겠지만, 집필진들 가운데 한어문자학 전공자가 적고, 심사 시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피해가려는 생각이 어우러진 결과로 보인다. 교재의 한어문자학 방면의 부적절한 곳을 지적하였지만, 이것이 한자교육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한자학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진술이 있다 해도, 漢字學的 진술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

한자, 한문의 교수학습은 한자학, 훈고학 외에도 음운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한자의 독음은 상고시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변화하였다. 이런 음운학적 변화의 이해는 한시 이해나 문장 釋讀에 필요하다. 朱子는 近代音 시기에 살았다. 그는 훌륭한 훈고학자 이었지만 한자의 음운이 크게 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시경 해석에 자신이 살던 시대의 한자음을 대입시켰다. 그는 시경에서 당시 한자음으로는 押韻이 되지 않는 글자를 발견하고 이를 소통시키기 위해 葉(協)韻이란 말을 만들어내었다. 예컨대 朱子는 『詩』, 「召南·行露」, 제2장의 韻字 ‘角, 屋, 家, 獄, 獄, 足’에서, ‘家’가 압운이 되지 않는다 하여 ‘家’를 ‘谷’으로 읽어 和韻하였다. 또,

86) 郭錫良, 위의 책, p.191, p.70.

제3장의 ‘牙, 壙, 家, 訟, 訟, 從’에서 ‘牙’와 ‘家’를 각각 ‘(葉) 五紅反[웅]’과 ‘(葉) 各空反[공]’으로 읽어 和韻 시켰다. 동일한 ‘家’이지만 문장에 따라 ‘곡’과 ‘공’으로 달리 읽었다. 이는 현재의 독음으로 과거의 독음을 재단한 愚를 범한 것이다. 우리도 이런 愚를 범하지 않나 되돌아 볼 일이다.

일반적으로 한자의 字源은 상당부분 규명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긴다. 일면 옳다. 하지만 많이 규명되었다. 아직 규명되지 못한 부분은 현재의 문자 자료로는 거의 과학적인 탐구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막연한 핑계로 한자의 자원에 대해 비과학적으로 접근하거나, 정통성이 떨어지는 연구서에 의지하여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한자학에 대한 비학문적 접근은 한문교육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參考 文獻>

- 김경수·김성룡·김봉숙·김평호, 『고등학교 한문』, (주)교학사, 2003.
 김도련·이현식·김영봉, 『한문 I』, 교학연구사, 1998.
 김상홍·최창구·이강렬·원창희, 『고등학교 한문』, (주)교학사, 2002.
 김언중·조영호·박영숙, 『고등학교 한문 I』, (주)교학사, 2012.
 박성규·윤재민·백광호·최승후, 『고등학교 한문 I』, 두산동아(주), 2012.
 송재소·조병덕·배기표·김호기·변유경, 『고등학교 한문 I』, (주)다락원, 2012.
 심표섭·이병주·이윤찬·강경모·백광호·허시봉·류기영·이태희, 『고등학교 한문』, 대학서림, 2003.
 심표섭·이윤찬·성진우·김준영·홍인기, 『고등학교 한문 I』, (주)도서출판 대학서림, 2012.
 안재철·원용석·김동규, 『고등학교 한문』, 대한교과서(주), 2003.
 안재철·원용석·김은경·김동규·임동헌·홍은정·이우경, 『중학교 한문』, (주)미래엔, 2013.
 이명학·박희병·장호성, 『漢文 I』, 을유문화사, 2001.
 이명학·장호성·현상곤·임완혁, 『고등학교 漢文』, 두산(주), 2004.
 이수철·곽치영, 『고등학교 한문』, 정진출판사, 2003.

- 이희목·진재교·최돈욱·신영주, 『고등학교 한문』, (주)천재교육, 2003.
- 최상익·이병혁·허남욱·김형룡, 『漢文 I』, 금성교과서(주), 1996.
- 최상익·이병혁·허남욱·이영우, 『고등학교 한문』, (주)금성출판사, 2002.
- 최상익·허남욱·이영우, 『漢文古典』, (주)금성출판사, 2003.
- 류준경, 『2014年度 韓國漢文古典學會 冬季學術大會 發表資料集』 토론문, 韓國漢文古典學會, 2015. 1. 16.
- 민중서관편집부, 『漢韓大字典』, 民衆書館, 1998.
- 한연석, 「根源聲符 丰, 各을 활용한 漢字指導法」, 『漢字漢文教育』 제24집,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2010.
- , 「教育用漢字 代表訓 설정에 관한 一考」, 『漢文古典研究』 제24집, 韓國漢文古典學會, 2012.
-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大學出版社, 1986.
-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 方述鑫等編, 『秦漢魏晉南北朝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 , 『甲骨文字典』, 巴蜀書社, 1993.
-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 于省吾, 『甲骨文字詁林』(全4冊), 中華書局, 1996.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 1965.
-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 1992.

Abstract

*Research on the present state of application in Chinese philology(漢語文字學)
reflected in teaching material - In terms of high school chinese character
text book / Han Youn Suk**

In high school chinese character text book, there are a lot of statements regarding Chinese philology[漢語文字學] and its practical use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Below are the practical use of Chinese philology[漢語文字學] reflected in teaching material.

First, it is a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at is linking[系聯] the chinese characters that share the same phonetic part[聲符]. For instance, one can teach and learn the chinese meaning-sound connected letter lak(格), lak(洛), lak(network : 絡) together as they have each(各 : gak) as their phonetic part[聲符]. This makes it easier to learn chinese character's shape[形] and sound[音].

Second, it is a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at is linking[系聯] the chinese characters that have many different meanings. This is common chinese character[漢字], chinese character language[漢字語]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at is often seen in chinese character text book. For example, the meaning of 'stopper[塞 : sek]' can be changed regarding its usage; old man's horse[塞翁之馬. frontier : 塞(se)], fortress[要塞. fortress : 塞(se)], cutting off the root[拔本塞源. stop : 塞(sek)].

Third, one can teach and learn by analysing the structure of chinese character or combining its part[部件]. For instance, learner can analogize the meaning of 'palm' by analysing the structure of palm[掌 : jang] in to 'hand [手 : soo. indicating the meaning] + yet[尙 : sang. indicating the sound]'.

* Associate Professor at Kongju National Univ. / hanyoun4860@hanmail.net

In other way, one can learn chinese character intestinal[腸 : jang], poplar[楊 : yang], smooth[暢 : chang], soup[湯 : tang] by presenting part[部件] shine [易 : yang] and combining it with 'moon[月], tree[木], open[申], water[水]'.

Fourth, it is a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at is linking[系聯] the chinese characters that have the same radical. For example, one can teach and learn kang(鋼), kuang(鑛), swue(鎖), chong(銃) together as they have the same radical. This has an advantage in learning chinese character's meaning [義] and shape[形].

Fifth, it is a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at is linking[系聯] the chinese characters that have similar shape or meaning. For instance, one can teach and learn 'ahm[(險), kum(檢)]' together as they have similar shape and 'year[年 : nyun], year[歲 : se]' together as they have same meaning. This has an advantage in learning chinese character's shape[形] and meaning[義].

Presenting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can be inadequate in translating a sentence. The meaning of 薄(bak) in 薄集(bakjyb) is presented as 'gather', however 'concentrated' is the precise meaning. 都(do) is presented as 'beautiful' in '我國本聖人之都(agukbonsengynjido)', however 'country' is the correct meaning. '襲(syeb)' is presented as 'descend' in 世襲(sesyeb), however 'inherit' is the correct meaning.

【Key words】 phonetic inflection[聲符活用 : sungbuwhalyong], structural analysis[構造分析法 : koojoboonsukbub], chinese characters that have similar shape, origin of chinese character analysis [字源分析 : jawonboonsuk], presenting meaning article[義項 : yewhang], pronunciation[讀音 : dokoom]

투고일 : 4월 20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